



2026년 추석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가족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강림교회**

54922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로 23

☎ 063) 277-3202 📠 063) 277-3201

🏠 <https://www.kanglim.or.kr>

✉ jeonjuganglim@gmail.com

섬기는 목사 이 경 준

# 추석 감사 가족 예배

초 청 ----- 인도 자

오늘은 추석입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앙고백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557장 ----- 다 같 이

기 도 ----- 말 은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걸어갈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말씀 ----- 신명기 26:1-11 ----- 인도 자

설 교 ----- 더불어 누리는 삶 ----- 인도 자

찬 송 ----- 559장 ----- 다 같 이

주 기 도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더불어 누리는 삶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추석은 감사의 정신이 담긴 명절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가족 또는 친지나 지인들과 모여 한 해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확의 결실을 나누며 추석을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여러 감사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입니다. 이 모든 절기의 공통점은 기억과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은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수확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과 감사를, 돌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 1.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햇곡식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말씀, 5-6절 말씀을 자신들의 신앙 고백문으로 암송했다고 합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 ... 이집트에서 학대받으며 강제노동을 했던 노예였습니다.’ 괴로움에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지요. 강한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의 억압과 광야 생활로 인한 아픔을 잊게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얻었다고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곧 이스라엘 스스로가 땀 흘리는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물하신 땅을 땀 흘리며 노력하여 기경하고 첫 곡식을 수확합니다. 땅을 향한 그들의 땀과 노력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 땀과 노력을 바쳐야 할 삶의 현장입니다.

### 2. 감사함은 함께 누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둡니다. 이 중 첫 열매는 광주리에 담아 주님께 바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되는 역사적인 구원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의 ‘경배’는 상대의 주권적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 대한 경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첫 수확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능한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돌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확한 풍성한 열매를 축제에 참석한 이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뭇까지 우리에게 맡겨 놓으셔서 같이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때에 따라 수확하는 삶의 열매들과 온갖 좋은 것들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1.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2.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3. 아침의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신명기 26장 1-11절

1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2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3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4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5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6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7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8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9 주님께서서 우리를 이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 주님, 주님께서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11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